

제 224 호

사순 제2주일

1977. 3. 6.

숲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범석규
편집	조성상
	한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③5098)

□ 강론 □



보았다네

왕수해 신부

옛날 어느 시골에 성모님을 열심히 공경하던 신부가 살았는데 신부님의 소원은 성모님을 한번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신부님의 기도를 하는데 성모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만일 나를 보게되면 두 눈이 멀게 된다.” 그러나 신부님이 두눈이 멀어도 좋다가에 성모님은 소원을 풀어주겠다고 하시었습니다. 신부님은 속으로 ‘한쪽 눈을 감고 보면 한쪽 눈만 멀게 되겠지’하고 생각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왔습니다. 성모님이 진짜 나타났습니다. 신부님은 한쪽 눈을 꼭 감고 성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쳐다본 눈은 성모님의 광채로 그만 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하도 성모님이 아름다워서 한쪽 눈으로만 본 것이 너무도 후회가 돼 다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은 피로 한쪽 눈만 가지고 보았는데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습을 두눈으로 보지 못한 것이 한이 됩니다. 이제 두눈이 멀어도 좋으니 한번만 더 보여 주십시오” 너무도 간절한 청이라 성모님도 허락하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신부님은 죽을 힘을 다해 쳐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눈이 멀기는 커녕 멀었던 눈마저 번쩍 뜨였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콥은 타볼산에서 예수님의 찬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에 광채가 일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까? 순간 베드로는 아! 지상천국이 여기로구나. 여기가 내가 살 땅이다 생각하고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조막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려고 합니다.”(루카 9장 33절)

천년만년 예수님과 살고 싶다는 심정이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지경이 되었으니 가히 그 광경을 짐작할만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한번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생에 단 한번만이라도 아니, 일순간만이라도 한번만 보았으면...?

그러나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한쪽 눈이 멀지 않아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배운 비결을 여러분에게 공개 하겠습니다.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고 남을 위해 희생과 봉사로 생활하면 부활날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꼭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까 꼭 보았어요. 만일 40일간을 이렇게 보내고도 부활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사람은 진안 천주교회로 문의하세요.

(진안 천주교회 보좌신부)



옛날 이야기

“...1838년 7월 30일에, ...우의정 이지연(李止淵)이 임금에게 아뢰어, 북경에 들어 가는 사신 중에 잡된 사람들이 끼어 가는 것과 통역관이 그곳에서 쓸데없는 물건을 사오는 것을 앞으로 엄금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신 일행이 압록강을 건너에 있어서 작성하는 명부책 중에서 왕궁과 관청에서 쓰는 물건을 사러 가는 마부(馬夫)이외의 잡인을 뺄 것과, 그들의 이름을 바꿔쓰지 못하게 할 것과, 그 수를 될 수 있는대로 줄일 것과 사신 일행의 하인들의 수를 정원을 넘지 못하게 할 것과, 번문(邊門)에서 열리는 무역 시장에는 서울과 의주의 상인 이외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과, 그 시장을 정한 날대로 열고 닫게 할 것과, 통역관들이 사들여 오지 못할 물건의 종류 등을 만들어서 이를 사신 일행과 의주 부윤에게 주어서 철저히 조사하여 어김이 없게 하기로 하였다.

북경에 왕래하는 사신 일행에 대하여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엄격한 제한을 주게 하였다는 것은 곧, 이제까지 이를 이용하여 교우들이 외국인 신부를 맞아들이고 교회의 물건들을 얻어 들이던 길을 막고자 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에 와서는 조선 정부도 어느 정도로 서양인 성직자들이 이미 서울에 들어와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어 이러한 정책이 세워진 것도 같다. 따라서 이 정책은 곧 다음해에 일어날 기해년(己亥年) 대박해(大迫害)의 징조를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유흥렬 박사가 지은 <增補 한국 천주교회사 上卷> 325페이지에 있는 옛날 이야기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를 살펴 미래를 배우는 학문이라던가.

숲정이 산책





3·1절 명동 기도회

정 승 현 신부

지난 2월 27일자 가톨릭시보 1면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한국 천주교 정의 평화 위원회의 광고가 실려 있었다

명동 성당 3·1절 미사 사전
 구속자를 위한 기도회
 일시 : 3월 1일(火) 오후 6시
 장소 : 서울 명동 대성당
 강론 : 김 몽 은 신부
 “모든 신자·수도자·성직자들은
 구속자들의 석방과
 복음의 정신과 일치와
 정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관 : 한국 천주교 정의 평화 위원회

예정대로 명동 성당에서는 지학순 주교님의 주례로 미사가 있었다. 물론 일년전 3월 1일 그 자리에서 거행된 미사가 사건(?)이 되어 구속되고 죄책판결을 받아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우리가 죄없다고 굳게 믿는 많은 양심의 수인(囚人)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60여명의 신부들과 수도자들과 신자들이 성당을 가득 메웠다.

김몽은신부(명동 성당 주임)는 강론을 통해, 58년전에 일어났던 3·1운동 정신은 4·19정신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위를 세계 단방에 드날리게 하는 바 되었다니 오늘날에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땅에 떨어지고 상호불신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음을 개탄하고, 정치 권력은 하느님의 법에 준해야만 목적하는 바 공동선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신부는 또한 말로만 하는 기도는 어려운 문제들을 모두 하느님께 전가시키는 것이며 기도하는 자는 먼저 지향하는 바를 생활속에서 스스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런 점에서 1년전의 3·1절 기도회는 진정한 기도로서 크리스찬 양심에 입각하여 정치·사회·경제면에 대한 사랑의 외침이었다고 역설하였다.

분명 이번 기도회는 종교와 집회의 자유를 유린당한 가운데서 이루어진 기도회였다. 명동 성당 주위와 입구에는 기관원들이 진을 쳤고 전국적으로 많은 신부들이 중도에서 강제로 끌려내려갔다. 몇몇 신부들은 연행(영장없이 잡아갔으니 남치다!)되기까지 했다. 원주교구의 최기식 신부와 안승길 신부가 모기관에 연행되었음이 기도회에서 공지되었지만 다른 교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본 교구에서도 많은 신부들이 그와같은 불행하고 부끄러운 변을 당하였다. 이 글을 쓰는 나도 다른 두 신부와

함께 군산에서 서울로 출발한 고속버스에서 전주 톨게이트 근처에 진출 치고 대기하고 있던 20여명의 기관원들에게 강제로 끌려내려져 개처럼 끌려다다랐다. 차창 밖에서 우리보다 먼저 출발했던 문규현 신부와 다른 두 신부를 강제로 끌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물건 다루듯이 하는 걸 보면서 끌려내려올 때 문득, 재판정에서 증인과 증거물을 채택해주지 않고 기만당하여 울분을 참지 못하고 외치던 문정현 신부님의 말씀이 귀에 쟁쟁하였다.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그레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만 이런 대접(?)을, 아니 이보다 훨씬 고약한 대접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부들은 본의 아닌 관광 드라이브를 했는가 하면 본당의 사도회장들을 앞세워 신부들의 인정을 호소하는 바람에 가슴을 치며 우리들의 약한 신앙을 탄탄한 신부들도 있었다. “우리들을 봐서라도, 처자식을 먹여살리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를 불쌍히 봐서라도 기도회에 가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어디 있던 말인가?

불안한 가운데 엄금되었다가 저녁 늦게 풀려나오니 그동안 초조히 기다리고 계시던 주교님과 신부들, 그리고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임원들이 반갑게 맞이해주셨다. 오직 그자들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다. 이제는 그자들을 완전히 불신하고 지하에 숨어서나 이런 기도회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나보다고 생각하니 분노를 억제하기가 힘들었다.

자꾸만 유린되어가는 국민의 권리들을 그냥 보고있으란 말인가? 행동이 따른 기도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자꾸만 악화되어가는 경제 현실들을 그냥 보고만 있으란 말인가? 행동이 따른 기도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자꾸 멀어져만 가는 민족통일의 날을 그냥 보고만 있으란 말인가? 행동이 따른 기도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자꾸 멀어져만 가는 국가의 국제적 위신을 그냥 보고만 있으란 말인가? 행동이 따른 기도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오는 3월 28일 오후 6시에 다시 명동 성당에서 같은 기도회를 갖는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의 뜨거운 기도를 청하는 바이다.

(교구 정의 평화 위원회 인권분과 위원장)

※ 축하 스타사장 개업 10주년 ※

항상 하느님과 교형 자매들의 사랑에 감사드리는 정으로 사는 장 바오로가 스타사장의 문을 연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아껴주십시오.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1977년 3월 1일

장 남 수 (바오로) 올림

※전주시 고사동 (역전 오거리-동아여관 앞) 전화 6094



베델 성서 강습을 마치고(1)

信仰의 깊이는 곧 「말씀」의 소화 여부

김 정 원 신부

“「말씀」을 듣고 실행한 사람은 땅을 깊이 판 다음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루카 6,48)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실천자라 볼 수 있다. 「말씀」의 굳건한 토대를 전제로 한 하나의 건축 설계자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건축가가 아무리 좋은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굳건한 토대아닌 모래 위에 짓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건축 설계자를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자. 하나의 음악가로 생각해보자. 말씀의 악보를 켜는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생각해보자.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어떤 곡을 켜다고 할 때 그것이 적어도 남에게 듣기 좋게 들리고, 어떤 연주회에 설 수 있는 정도라면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연습과 수련이 필요하겠는가.

훌륭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필생을 두고 탐마, 연마를 해도 아마 완전한 것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의 예술가이다. 「말씀」을 켜는 예술가이다. 하느님의 작곡인 「말씀」을 연주해야 하는 바이올리니스트이다.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곡을 익혀야 할 것이다. 「말씀」에 대한 공부 없이 어떻게 곡을 익힐 수가 있겠는가. 일개의 바이올리니스트가 필생을 두고서도 완전한 예술가가 되지 못할진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하겠는가. 「말씀」에 대한 공부를 얼마만큼 해야 되겠는가.

신앙인이 얼마만큼 깊이있게 사느냐하는 것은 「말씀」을 얼마만큼 자기 속에 깊이 간직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디서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는가.

그것은 「말씀」과 만나는데 있다.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에 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내연력(內燃力)은 자기 속의 「말씀」의 소화에 있는 것이다.

평소에 그래도 「말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온 바라 이번 제4회 베델 성서 연구회가 있다가에 황급히 전화 수속을 마쳐놓고 내아름대로 상당히 마음으로 기뻐다.

다른 목사같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신부라기에 특별히 고려되어 수강을 하게 됐다. 이점 우선 베델 성서 위원회에 심심한 감사함을 드리는 바다. 베델 성서 연구는 한마디로 성서 전반에 걸쳐 일목요연하게 그 개관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창세기부터 신약 계시록에 걸쳐 전반적인 관찰을 우리에게 심어준다. 개관과 더불어 상호 관련성을 가르친다.

성서를 공부할 때 우선 전반적인 개관과 그 관련성이 중요하다. 만일 로마서 하나만을 몇년을 두고 가르친다고 하면 그것은 전반적인 것이 못된다. 그것은 먼저 전체의 메시지를 살핀 다음에 할 일이다. (계속)

□읽은 가톨릭 시보 77년 2월 27일자 4면에 실린 부안분당 주임이신 김정원 신부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1일까지 크리스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있었던 한국 루터교회 성서 강습회에 다녀온 소감이다. <편집자>

요심이 (188) 김병오



꽃상여, 입관, 입관부속 일체
최 씨 관 집
 ☆교우들에게 특별염가 봉사☆
 전주 남부시장 B동 87호
 최 병 화(그레고리오)
 ☎ ② 5 2 1 6

신자들의 건강 센터

성심당 한약방

이 삼 범(별노리아노)
 육교길 구 북루배차장 옆
 전화 ④ 4 5 4 4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영 교우집으로!

미성당 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전화 ③3301 (자택 ②8548)

각종 페인트·지물
 비닐 장판·표구재료·화선지
 K.S 사슴표 페인트 대리점

대동지업사

임 정 원(도민고)
 □전주시 풍남동 1가 17(동문사거리)
 ☎ ② 5 9 8 6 · ② 2 7 6 5

지업부: 벽지, 장판, 각종 비니루
 문방구: 학용품, 사무용품
 완구부: 보행기, 어린이 장난감 일체

동 아 상 회

※교우 특별우대, 많이 찾아주세요!
 장 경 암(혜오)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주장 옆)
 전화 1 0 6 번

경향잡지, 소년도 취급 합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는
 가톨릭 센타로 연락하세요

가 톨 릿 시 보

전주지사장 범 석 규 신부
 주재 기자 한 상 갑(바오로)
 수금원 범 덕 배(피로)
 □전주시 서노송동601, 가톨릭 센타 (③3498)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
지
사
향

1. 사순절입니다 뜻깊게 보냅니다.

① 사제양성 후원을 위해 각 가정에 나누어 드린 돼지 저금통에 정성을 모아 봉헌합니다.

② 금요일(소제)...사순절 동안의 매주 금요일, ③ 금요일과 단식일(대제)...3월 18일, 4월 8일

2. 노동 세미나 및 영화상영(오늘 오후 1시, 가톨릭센터 강당, 주최...J.O.C. 전주교구 연합회)
많은 회원과 근로자들의 참석 바랍니다.

3. 중·고등 연합회 정기총회(다음주일<13일> 오전 10시, 가톨릭센터, 각 분당 신·구 임원 참가)
연합회장단 후보 희망자는 분당 신부님 추천을 받아 오늘까지 연합회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4. 혼인 문제 상담일 (10일<목>), 오전 10시-오후 4시, 교구청 응접실)

5. 금주의 방송안내(서해방송, 매일 밤 11시 30분, 「사색의 오솔길」. 이태주 신부 방송)

■ 한 공력 대주교님 4주기(7일<월>)에 뜨거운 기도 바칩시다.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기 오복복
보좌 신부 김진석 사도 회장 이복석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2. 방ziger3회 월례회: 6일 오후 2시
3. 미사 시간 변경: 7일 부터 실시 ※주일-①오전 6시
②오전 8시반 ③오전 10시 ④오후 7시반
※평일-①오전 6시, ②오후 7시반
4. 성서를 읽읍시다: 사도회 사무실에서, 대출용 도서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 성모 유치원 개원식: 11일(금) 오전 10시반
6. 축 입학! 주일학교: 3월 5일(토)
※수녀님 이동: 락 프르벨리아 님-함안으로
목루시아님-3월 4일 부임
□주일 봉헌금: 102,916원

(복자)

전화 ⑤5238 주임 신부 김종길
보좌 신부 조성훈 사도 회장 김종길

1. 사도회 월례회: 7일(월) 오후 7시
※사도회 임원·구역반 회장 빠짐없이 참석바람
2. 성우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 미사후
□주일 봉헌금: 39,505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보좌 신부 박장훈 사도 회장 오현택

1. 사도회 월례회-10시 미사후
2. 신자가정 방문 및 반사회
1반(8일), 2반(9일), 3반(10일), 4반(11일)
□주일 봉헌금: 36,915원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영희 사도 회장 박종용

1. 사도회·애령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슬라이드 상영: 오늘 오후 8시, 혼인 생활에 대해
※20세 이상의 젊은 미혼·기혼자들 많은 신청을!
3. 특별 강연: 11일(금) 오후 7시반, 주제-보람있는 생활, 초대 강사: 한상갑님, ※많은 참석 하세요
4. 청년회원 모집: 본당의 청·장년(이번 졸업생포함)들의 많은 참가 바람
5. 축하합니다 유영철 이사장님(신협 중앙 이사 퇴임)
6. 축 결혼! 유문희군, 김순자(루시아)양
11일(금)오전 11시 혼인미사
7. 통신교리 수료증 가지고 계신분 금주내 신부님께 제출바람(제2단계 선발예식에 참고)
□구정 합동미사 예물: 87,355
□주일 봉헌금: 46,485원 감사합니다.

(숲정미)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보좌 신부 전종근 사도 회장 이대권

1. 사도회·누갈다 부녀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2. 학생회원 모집: 미사후, 많은 참석 바람
3. 예비자 교리: 희망자는 사무실에 접수바람
4. 사제 양성 후원 사업용 돼지 잘 먹입니다.
5. 반장 임명: 진북2동 4반장-김봉례, 5반장-이홍재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함기
보좌 신부 김윤석 사도 회장 유성준

1. 사도회: 오늘 저녁 미사후
2. 성화회 총회: 오늘 10시 미사후
3. 유아세례: 2시 미사후
4. 성가대(혼성)창립: 사도회 회장단 후원
간사-이스테파노, 박세서리아
지휘-김병오, 반주-임옥경, 유정자
5. 사순절 정규 심방: 동·서 완산동(토·목)
합동 묵상회-금요일, 유치원에서-
6. 예비자 교리: <일> 10시-학생, 11시-일반
<수>젊은 남녀, <금>성인남녀
7. 새생당 건립위원 선임 위원장-이종두, 부위원장-김환용, 이길용
□구정 합동 미사 예물: 271,600원
□주일 봉헌금: 109,480원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박종근
보좌 신부 김용환 사도 회장 김용환

1. 분당 확인지도: 7일(월) <현황 브리핑 및 확인지도(10~12시), 점심(12~1시반), 교육(14~16시), 미사(16시~)> ※사도회 임원·공소회장·구역장님 9시 반까지 참석바람.
2. 견진성사: 3월 20일
3. 공소 판공 성사(견진교리 결) 내동리(8~10일), 동산촌(10~11일)
4. 부활 축일맞이 성가연습: 청년 많이 참석바람
□신축헌금: 최수복(1만원), 누계(5,593,500원)
□주일 봉헌금: 6만원